

# 한우산업(개량)에 대(代)를 잇다

전북지역본부 과장 김창열

## 젊은 나이에 한우에 대한 열정으로

전북 정읍시 감곡면의 '감곡농장'에서 대(代)를 이어 한우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장경원 씨는 장성운(현 전북한우협 동조합장)대표의 큰 아들로 2005년, 26세 젊은 나이로 한우산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지금 들때는 제2농장에서 육성우 관리와 암소 비육우 관리, 셋째는 농장의 사양관리와 질병체크 업무를 전담하여 3형제가 분업화를 통한 한우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초기 2년여 동안은 두수 증가로 축사부족과 과밀사육으로 힘들었고 최근 2~3년간은 소 값 하락 및 사료가격 상승으로 소득이 줄었지만 일관사육으로 극복하여 현재 1,200여두의 사육과 월 25여두의 출하 등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또한 성적관리와 수익성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에 농장 개선사항 체크·자가 인공수정·분만·작업일정 등 농장의 총괄적인 업무에 대해 철저한 계획 경영으로 농장운영하고 있다.

## 조기이유 및 사양관리

2008년도 거세우 평균 출하실적은 등지방두께 10.7mm, 등심단면적 89.6cm<sup>2</sup>, 도체중 411.5kg, 1등급이상 출현율 92.8%였다. 2009년은 육질위주의 개량에 주력하여 1등급 이상 출현율 75%(전년도 69%), 1등급이상 출현율 100%(전년도 93%)가 목표다. 한우는 조기 이유를 통해 번식간격을 줄이고, 육성률 및 고급육 향상에 관여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고 있다.

1. 이유시기 : 영양상태 등을 고려하여 생후 70~100일 사이
2. 우군형성 : 암·수 구분 없이 10두 내외(우사크기 : 6×12m)
3. 이유 시 : 전염성 호흡기(IMR)백신 2회 주사, 구충제 살포 등
4. 사료급여량 : 이유 초기 스트레스 완화 목적으로 농후사료(펠릿) 무제한 급여, 육성우 TMR 및 티모시 건조 무제한 급여 (위, 골격 및 근육발달 촉진) 이후 소의 분변상태 확인하여 옳은 분이 지주보이면 농후사료(펠릿) 제한급여(1두당 2kg)
5. 우군분리 : 생후 7개월령(암·수 분리 및 거세는 7두 이내/우양), 우군분리 후에는 육성우 TMR만 급여
6. 사료구성 : 이탈리아산 라이그라스 군포 사일리지, 총채브리 군포 사일리지, 볏짚, 티모시, 소맥피, 미강, 총채보리 3호 기루사료
7. 이유 시 고려사항 (현재 농장 육성우의 체형발달을 관찰한 결과 몇 가지 보완이 요구됨)
  - 가. 육성우의 계절적 변화에 따른 바닥관리 중요함  
(이는 분뇨처리 능력이 약하여 열악한 우사 환경 발생하고 스트레스 유발임)
  - 나. 사료배합 시 수분을 조절하고, 최대한 많이 먹게 하줘야 한다.  
(육성우 TMR 사료의 배합에 있어 최대 관건)
  - 다. 수분이 많으면 연변으로 어어지게 되고 사료 섭취량이 떨어진다.
  - 라. 사료효율의 저하로 인하여 외관상 배가 처지게 되면 비육으로 이어지기 전 골격이나 근육발달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가 된다.
  - 마. 골격이나 근육이 미발달 된 상태에서 미발링 형성에 영향을 미쳐 근간지방이나 피하지방으로 쌓여 고급육 생산에 악영향을 미침으로 사료급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농가탐방소

## 한우산업의 미래는?

장원경 씨는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개체들이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변 여건 조성 후 생산된 한우고기는 더욱 맛있고, 안전하고, 위생적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 민족의 얼이 담긴 한우는 고급육과 안전성을 갖추면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힘찬 포부를 밝혔다.